

1. 낙관성은 현실적 낙관성과 비현실적 낙관성으로 구분된다. 현실주의적 낙관성은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 잠재적 기회와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과 관련된다. 이런 조건들을 통해 현실적 낙관성이 생기며 이는 장기적인 행복에 보탬이 된다. 비현실적 낙관성은 근거 없는 안전감을 발생시켜 그릇된 믿음으로 이어질 수 있다. 따라서 비현실적 낙관성보다는 현실적 낙관성을 따라야 한다.

(나)의 돈키호테는 수많은 거인들과의 싸움을 앞두고 별다른 점검을 하지 않는다. 이는 자신에 대한 규칙적 점검이 일어나지 않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또한 돈키호테는 거인이 아니라 사실 풍차라고 조언해주는 로시난테를 무시한채 자신의 잘못된 믿음을 유지한다. 이는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이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돈키호테는 바람에 의해 풍차 날개가 움직이는 것을 보고 기도만 했다. 이는 잠재적 기회와 변화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돈키호테는 현실적 낙관성의 조건중 어떠한 것도 달성하지 못했으며 정반대로 비현실적 낙관성의 영향으로 장기적인 행복증진은 실패했다.

(다)의 여인은 남들에 비해 부족한 자신의 신체조건을 나열하며 긍정적으로 인식하려한다. 이를 통해 자신에 대한 지속적 점검이 이루어지며 변화하는 상황에 대한 재평가가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청혼을 하기위해 중매파를 부르고 가족들과 의논하는 모습을 보인다. 이를 통해 환경적, 사회적 피드백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마지막으로 여인은 현실적 낙관성의 조건들을 모두 충족한 여인은 김도령과 의혼하게 되며 (가)의 돈키호테와 달리 장기적인 행복을 달성하였다.

2. 제시문(라)는 시험성적적 현실성, 낙관성의 정도에 따른 상관관계를 보여준다. 우선 낙관성의 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성의 정도가 높을 수록 성적이 높음을 알 수 있다. 즉, 시험성적은 현실성에 비례한다. 따라서 낙관성에 비해 현실성이 시험성적에 더 중요한 요소임을 알 수 있다. 낙관성 정도가 낮은 경우 현실성 정도에 따른 성적차이는 약 0.3이다. 반면 낙관성 정도가 높을 경우 현실성 정도에 따른 성적차이는 3이다. 이를 통해 낙관성도 시험성적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제시문(가-1)은 사실과 다른 자신에게 유리한 측면만 관찰하는 것을 '긍정적 환상'이라고한다. 이런 '긍정적 환상'을 가진 사람은 건강도 좋아지며 학생들은 좋은 성적도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제시문(라)를 바탕으로 했을때, (가-1)의 긍정적 환상론자들의 주장은 잘못되었다. 낙관성은 성적과 비례하지 않으며 학생들의 시험성적은 낙관성여부와 상관없이 현실성에 비례하기 때문이다. 긍정적 환상론자들은 낙관성의 정도가 높으며 현실성 정도도 높을때 수치인 5를 내세워서 자신들의 주장을 정당화 할 수 있다. 하지만 낙관성이 높을 경우 현실성이 낮을때의 2라는 수치가 긍정적 환상론자들의 주장이 틀렸음을 증명한다. 정리하면 낙관성이 높을수록 시험성적이 높다는 긍정적 환상론자들의 주장이 타당하기 위해서는 높은 현실성이 전제되어야 한다.